

2022년 복종별 경기전망

한국섬유신문(2021. 12. 30.)



팬데믹 상황에 익숙해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아웃도어 골프 수혜가 예상되며, 친환경 제품은 대세가 아닌 필수일 것으로 전망된다.

-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올해 보복소비로 인한 성장의 기대로 섬유패션기업은 올해 경기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.
- 올해 섬유패션 시장은 아이덴티티를 가진 브랜드와 디자인으로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며, 특히 아웃도어와 골프 부문은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코로나 상황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
- 지속가능과 친환경 제품은 이제 대세가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,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들은 더 예쁘고, 더 지속가능한 상품을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임

① 야외활동 늘고 MZ유입 힘입어 성장세 지속

- 위드 코로나(단계적 일상회복)가 되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든 여행이나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웃도어 시장은 작년처럼 성장을 이어갈 것
- 다만 작년 베트남 섯다운으로 인한 공급망 위협이 있었던 만큼 올해 기업들은 공급망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

② 취향 골퍼 늘어 프리미엄·용품 강화 화두

- 2022년에도 골프웨어시장은 고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, 두터운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패션 브랜드 역시 골프웨어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.

③ 전체 패션시장 저점상향 전망...캐주얼 스포츠 확장기대

- 22년 패션시장은 6.2% 플러스 성장을 총 46조 실적 기대를 점치고 있으며, 이는 스포츠웨어 수요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됨.
- 패션 전 복종 시장이 우상향기조세 속에 특히 스포츠시장과 신발, 아동복 시장은 성장세를 탈 전망

④ 수트 축소, 대체 아이템 개발이 성패 좌우

- 남성복은 캐주얼에 안착했고 이에 적응해 변하지 않은 브랜드들은 축소되거나 사라졌으며, 작년에 오프라인 남성복 매장을 철수하거나 없어진 남성복 브랜드가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짐.
- 2022년에는 남성복 핵심 아이템인 수트와 방모 코트의 계속적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, 대체 아이템 개발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, 이너 아이템의 볼륨화(니트, 티셔츠류)가 과제로 기능성 코트형 다운류 제품 확장이 기대

⑤ 이커머스 고객 니즈에 기업 성패 가늠

- 침구류산업 전반적인 경기는 전년 대비 다소 호전돼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, 당장 감당해야 할 경영과제도 적지 않음.
- 먼저,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난으로 전 세계 팬데믹은 목화나 구스 등 주요 충전재의 공급난 심화로 원부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
- 둘째, 인력난의 심화로 침구업계는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 도입이 곤란해 인력 의존도가 높은 편
- 세 번째로는 탄소중립 및 ESG경영 등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대응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소비자 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때 친환경기업 여부를 주요 포인트로 주목하고 있음.



⑥ D2C 스마트·전문 물류로 대응력 높여야

- 통신 속도의 발달과 페이먼트의 간소화, 일상이 된 모바일 라이프 영향으로 공급자는 D2C서비스를 위한 유통 구조 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
- 고객 접근성이 높아지고 ISP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간 택배 물동량은 40억 개를 돌파했으며, 국내에 등록돼있는 물류회사는 17만 개 이상
- 온라인의 점유가 커진 만큼 각 브랜드마다 물류센터의 재고와 업무 범위가 많아졌으며, 물류운영의 노하우, 끈질긴 PI(Process Innovation), 적극적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IT기술,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인프라 및 설비 등의 요소를 적정 수준 이상 갖춰야 현재의 폭발적인 물동량에 대응할 수 있게되며, 이를 스마트 물류센터라 할 수 있음